

종합·해설

공천헌금 파장 어디까지...새누리 초비상

친박 '개인비리' 선긋기...박근혜 악영향 차단 주력 당 일각 추가 의혹 터지나 긴장...진상조사위 진통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 등 제명이라는 강경책을 내놓긴 했지만, 당의 체신 이미지는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은 다시 한번 크게 휘청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친박계 핵심 현 전 의원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불법·불공천의 오명이 덧씌워지면서 당 자체는 물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가도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현영희 의원의 과거 수행비서였던 정모씨가 검찰에서 중간전담책 조기 문씨를 통해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7일 현재 현 전 의원은 조씨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다. 하지만, 현 전 의원과 조씨가 같은 날 인근 장소에서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이 됐다.

공천헌금 의혹 파문이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선 친박계는 이번 공천헌금 파문이 이설령 사실상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비리라고 선을 그으면서 박근혜 대선가도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선 추가 공천비리 의혹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누리당이 9일 발족하는 공천헌금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당 지도부 추천인사와 당 대선 경선후보 5명이 각각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진상조사의 범위를 놓고 당 지도부·친박계와 비박주자 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지난 5일 7인 연석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국한하기로 못박았다”고 말했으나, 김문수 후보가 추천한 김용태 의원은 “총선공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천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날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증거인멸과 검찰의 사건 축소 등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달 30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며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특정신문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허겁지겁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는 누군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자료를 (특정신문에)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통합진보당 심상정 전 공동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중적 진보정당을 위한 혁신추진 모임(진보정치혁신모임)'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시민, 조준호, 심상정 공동대표, 노회찬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그 X’ 서슬이 퍼래” 이종걸 트위터 논란

차측 “쌍용 사과하라”...李의원 “오타였다” 유감 표명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녀’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밤 트위터에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을 거론하며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라고 전제, “장사의 수지 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간다”며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녀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얼똥방...”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John-2512’라는 네티즌이 “‘그녀’이란 표현은 의원님께는 좀 격이 안 맞는다”며 표현 순화를 요청하자 이 의원은 ““그녀”는 ‘그녀’의 줄임말”이라며

“나를 많은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사소한 표현에 너무 매이지 마라”며 “‘그녀’과 ‘그녀’는 같은 말”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경선캠프의 이상일 대변인은 7일 이 의원의 ‘그녀’ 표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의 글을 보면 실수로 오타를 낸 게 아니라 상스러운 욕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를 헐뜯고 비방하는데 혈안이 돼 온 민주당에선 이제 쌍용까지 내몰는 사람이 나왔다.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그녀’는 ‘그녀’의 오타다. 조그마한 아이폰 사용 때, 그리고 한 번 보내기 클릭하면 정정이 안되는 트위터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재차 해명한 뒤 원문에서 ‘그녀’를 ‘그녀’으로 정정한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위터 글을 보면 ‘박근혜 의원’이라고 적시려다 오타가 났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욕을 쓸 리는 만무하다”며 “실수로 인해 본의 아닌 표현이 욕이 돼 듣기에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유감”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논란이 증폭되자 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 ‘임시국회 정상화’ 對與 압박 공세

8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의 불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7일 여당에 임시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현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열기를 원하는 삼일위법 현안을 ▲공천 헌금 파문(법제사법위 및 행정안전위) ▲영역경비업체

컨택터스 폭력사태(환경노동위) ▲낙동강 공사 비리 의혹(국토해양위) ▲폭염피해 대책(보건복지위) ▲반값 등록금 및 무상보육 중단(교육과학기술위) ▲전력난 및 원전 문제(지식경제위) 등이다. 특히 컨택터스 폭력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삼일위법 활동을 민간사찰 구조 및 내곡동 사저 특검을 관찰하기 위

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사위와 환노위, 복지위 등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라도 열겠다는 각오다.

반면, 새누리당은 삼일위 활동은 할 수 있다면서도 “박 원내대표에 대한 방관막을 견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은 컨택터스와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만도 등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진보 신당권과 창당 논의 시작

강기갑 대표 “9월 안으로 진보정당 건설 마무리”

통합진보당 신당권과 7일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신당권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정치 혁신모임’을 갖고 신당 창당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논의했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9월 안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가 당 해체 후 신당 창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회의엔 심상정 전 원내대표와 유시민 전 대표, 노회찬·강동원·서기호 의원, 천호선·이정미 최고위원 등 참여당계와 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옛 민주노동당 비주류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심 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선명한 민생정당과 대중정당의 길은 여전히 중요하며, 야권

연대를 통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면서 당 안팎의 광범위한 세력과 지지자들을 묶어 진보정당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전 대표는 “부족함과 미흡함, 판단착오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창조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애초 약속한 그 길을 가려고 모였다”고 강조했다.

野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이정희씨 보좌관 등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관 조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3월 이 전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립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단골’ 비서실장 김영록 의원

이번엔 김두관 대선후보 비서실장 맡아

민주통합당 김영록(사진) 의원이 최근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김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 의원은 2010년 8월 초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중순엔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공무원 시절엔 허경만 전 전남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의원이 네차례나 비서실장직을 맡은 것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꼼꼼한 업무 처리 때문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비서실장 전문 국회의원’이라는 별칭(?) 얘기도 나온다. 정치 신인으로 과감한 도전에 나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양자인 비서실장 직을 연속으로 맡아 왔기 때문이다. 비서실장이 정치적 역량도 있어야 하지만 그 틀에서만 안주



한다면 정작 ‘큰 정치’는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비서실장을 맡은 것은 아니다. 애초엔 정책분야를 책임지려고 했는데, 대외적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락했다”며 “무엇보다 김 후보의 지방 살리기 정책과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철학과 가치관이 나와 비슷해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필기자 golee@kwangju.co.kr

부동산 재테크 무료특강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재테크 성공전략

~최근 부동산시장경망, 부동산경매, 토지투자성공전략~

최근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성공투자 전략을 찾을 수 있는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사: 정영수 전남대 경영학 박사(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최근 부동산 정책과 2012년 재-테크 성공전략”
강사: 정영수 경영학 박사(부동산 마케팅 성공)
- 전남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주임강사
- 전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강의

강사: 박관식 원부동산 연구소장
“혼란기시대 부동산 시장 예측과 소액으로 성공투자전략”
- MBC-TV 경제교양강좌
- YTN TV 고정출연, 한국전력등 기업체 출강

강의일정

장 소	순천 애니 백화점 8층 문화센터	광주은행 본점 강당
일 시	8월9일(목) 1시30분~3시30분	8월17일(금) 13시30분~15시30분
접수처 (선착순마감)	061)720-5700	062)221-1810~2

*특 전 : (주)다와 옥션 경매 이용권 3만원 증정 HP: 017-613-1808

임대&매매 (수익성 최상)

키즈테마카페 임대

- 뷔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 500대
- 보증금 3억
- 월 2,000만원

예식장, 상생뷔페 임대

-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 500대
- 보증금 4억
- 월 2,500만원

도심형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당 150만 / 150세대
- 14억 투자 = 수익9억

수익성 최상!

- 25억 = 월2,600만
- 대지 1,342㎡
- 건물 5,700㎡
- 4억/월4,300만
- 용자36억 656억

010-3666-4646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아울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NPL/특수경매물건

→ 도대체 NPL과 특수물건이 무엇인가?
→ 왜? NPL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 NPL과 특수물건이 만나면 수익률?
→ 세금이 전혀 없다는데?
→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데?
→ 선착순 4명 한정 / 비법전수
→ 주1회 3개월 수료 / 회비 550만원
→ 수료중 투자가능 (단독/공동)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